

‘아트 신안’ 1년간 문화예술 가득

신안군·한예중, 오늘 ‘섬&아트 프로젝트’ 선포 해양문화 발전·예술 저변확대 공헌활동 추진

신안군과 한국 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가 손을 잡고 해양문화 발전과 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안군과 한예중은 21일 오후 3시 수화 김환기(1913~1974) 화백의 고향인 안좌도에서 ‘섬 & 아트 프로젝트’ 선포식을 갖는다.

이날 선포식은 지역 학생 오케스트라인 안좌초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한예중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전통예술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길놀이와 국악 퓨전그룹 ‘고래야’의 연주, 음악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의 연주와 성악 가곡 ‘암해도’ 낭성 독창, 무용원 졸업생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인 ‘모던 테이بل’의 현대 무용까지 한예중 대표 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무대로 만들어진다. 또한 이날 안좌도와 자라도를 잇는 연도교 기공식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청정자연과 생태환경을 한예중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 콘텐츠들과 접목시켜 ▲문화시설·콘텐츠의 인적교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 공헌활동 ▲해양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과 한예중은 지역주민이 예술과 친숙해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의 단계적 시도부터 지역의 자발적 생활 예술문화와 지역의 원형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이뤄져 자연스럽게 축제로 만들어지는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군과 한예중은 향후 1년간 섬주민이 예술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아라운드 아트(Around art) ▲1004섬에서 천사를 만나다 ▲섬 이야기 등 다양한 실험적 예술 프로그램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1회성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덕수(한예중 공연전시센터 예술감독)교수와 박근형(연출가) 교수, 이종호 교수 등 많은 한예중 교수와 학생, 졸업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 신안군이 누누나 머물고 싶고, 쉴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튼튼한 김장 배추로 자라림” 해남군 신이면 금송리 주민들이 김장용 배추모종을 옮겨심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가을배추 1527ha, 겨울배추 2786ha 등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한 총 4413ha에서 배추가 재배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완도군, 아동센터 14곳과 아동보호 업무협약



완도경찰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아동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완도경찰서(서장 양상진)는 지난 18일 경찰서 상황실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내 14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경찰의 신경망인 파출소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도서지역 잠재적 위험아동을 파악해 맞춤형 보호활동과 아동위가 시간대에 집중 순찰을 펼쳐 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신안군 귀농가구에 500만원 지원

귀농인 종합 대책 수립

신안군은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등 가구당 500만원씩 연중 지원하는 등 귀농인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군은 귀농한지 3년 이내 65세 이하의 귀농인으로 빈집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구입해 수리할 경우 이같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귀농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지원은 국비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귀농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안군이 자체적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가주택 수리비로 44 농가 2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소형 농산물 저장시설

도 우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군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지원 상담실’을 개소해 운영하고, 귀농인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귀농 성공률이 방분까지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올 상반기 신안군으로 전입한 인구가 2930명으로 늘어났다. 군은 내년부터 젊은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부양가족 장려금과 교육비는 물론 상공 귀농인에게는 특별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전입신고와 함께 귀농신고서를 작성하면 각종 귀농정보와 작목별 영농기술지원은 물론 생산기반 시설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 시장 관사 폐지 결정

시민 설문조사서도 89% 불필요 응답

목포시가 공영재산 중 1급 관사인 시장 관사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20일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구인 시의원은 “20~80대 목포시민 512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관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시장 질문을 준비·논의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관사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포시민 10명 가운데 7.6명은 시장관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6%인 438명은 ‘시장 관사에 대한 관리비 지원이 불합리하

다’고 답했다.

특히 시장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55명(11%)에 불과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56명(89%)에 달했다.

이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 시장관사를 매각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목포시는 현재 1급~3급 관사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의 시장관사는 지난 2006년 1억 8000여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현 시가는 2억50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농수산 소품물 ‘해남미소’ 추석맞이 구매고객 이벤트

해남군 농수특산물 소품물인 ‘해남미소’(www.해남미소.한국)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 종합 선물세트 3종 등 총 400여종의 상품 가운데 130여종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또 많이 선물한 2명에게 각 20만원 이용권, VIP고객 30명에게 각 5만원 이용권, 추첨을 통한 100명에게 각 1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소품물 ‘해남미소’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상품구매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문하거나, 고객센터 무료전화(080-859-1100)로 하면 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고창 선운사문화제 함께 해요”

22~23일 산사음악회 등

고창 선운사문화제가 22~23일 이틀간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고창 선운사에서 개최된다.

선운사는 불교와 사찰을 알리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 함께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불자와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제는 불교의식과 산사음악회, 축하행사, 경연대회 등으로 꾸민다.

22일 오후 6시부터 선운사에서 1500년을 이어온 보은염(報恩願)이

운(移運)행사를 재현한다. 백제때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스님에게 소금 제조법을 배우고 교환된 도적들이 은혜를 갚고자 소금을 절에 바쳤다는 전설을 되살리는 행사다. 검단마을 주민들은 서해 염전에서 제조한 소금을 소에 실어와 백제시대 복장으로 선운사에 공양한다.

한편 고창 선운산 공원 입구 생태 숲부터 도솔암까지 붉은 용단을 깔아 놓은 듯 꽃무룻이 만개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 과학교육원 오늘 천체관측 행사

덕진연못 분수대앞 광장

전북도 과학교육원은 21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덕진연못 분수대앞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배양하기 위한 천체관측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전북 전문교육연합회 교사들의 상세한 가솔별 별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화성, 토성, 달, 성단과 성운 등을 여러 종류의 천체망원

경을 이용해 관측할 수 있다.

정남무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밤 하늘을 관측하는 여유도 가져 보고, 평소 느끼지 못하는 가족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과학교육원은 특색사업 일환으로 연 5차례 ‘사계절 별자리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0~3세 직원자녀 보육시설 개원

정읍시는 지난 19일 전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개원했다.

어린이집은 전북도 내 자치단체가 세운 첫 보육시설로, 정읍시 공무원의 0~3세 자녀가 다닌다.

시는 공무원의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해 시청 뒤 옛 선관위 청사를 개축해 2층(256㎡)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을 지었다.

어린이집은 39명 인가를 받아 13명의 영유아로 출발했으며, 점차 입원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생기 시장은 “여성 공무원이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하도록 공립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서남해안 갯벌 유네스코 등재 가속화

전북도 고창·부안 곰소만 갯벌 15.3km 추진사항 회의

전북도가 고창·부안군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제2차 전북도 세계유산위원회 2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2분과는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와 지역 추천인물로 구성된 위원회로, 고창·부안 지역의 곰소만 갯벌의 등재 추진에 대한 사항이 보고됐다.

서남해안 갯벌은 국내 세계유산 수

준 등재추진 대상 중 유일한 자연유산 목록으로, 고창·부안지역을 비롯해 신안·무안·보성·순천갯벌을 포함한다.

서남해안 갯벌은 지난 2010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결정됐고, 2011년 2월 세계유산 우선 추진 대상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남도, 문화재청과 함께 ‘서남해안 갯벌 등재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4차례 갯벌 포럼을 열었다.

앞으로 서남해안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정은 문화재청에서 10월중에 5

차 포럼을 열어 최종 등재 추진지역을 확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자체의 MOU 체결을 거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2분과위원장인 백인철(사)고창문화연구소장은 “서남해안 갯벌의 등재에 지자체와 학계전문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곰소만 갯벌면적은 고창 갯벌 10.4km과 부안 줄포만 갯벌 4.9km 등 총 15.3km로, 도내 갯벌 면적 117.69km의 7%를 다소 웃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공무원연금공단 ‘남원 상록골프장’ 내일 개장

공무원연금공단은 남원시 대신면 대곡리 풍악산 중턱 114만5000여㎡에 조성한 ‘남원 상록골프장’을 22일 공식 개장한다.

상록골프장은 18홀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홀 어디에서나 지리산을 바라볼 수 있어 풍광이 빼어나다.

코스의 이름도 춘향고을의 특성을 살려 지었다. 풍악산 자락으로 향하는

아웃코스는 풍악산 계곡이 코스를 가로질러 가도록 설계돼 낭만적인 느낌이 조성된 ‘몽’으로 이름붙였다.

또 풍악산 계곡물이 흘러 잔잔한 호수를 이루는 인코스는 운쾌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걸맞게 ‘춘향’으로 지었다. 특히 인코스의 백미는 섬 위에 그린을 올려놓은 ‘아일랜드 홀’로서 섬세한 플레이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inwang-

no.kgc.co.kr)으로 3주 전부터 실시간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8홀 기준으로 주중 공무원 5만5000원(일반 8만원), 주말·공휴일 8만원(일반 12만원)이다.

한편 남원 상록골프장은 천안, 화성 골프장에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만든 3번째 골프장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단 신

전북도 추석선물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선물구매와 택배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돕고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로 신청받아 3일 이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전화상담 창구다.

핫라인은 도청 소비자생활센터(063-280-3255)와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에 설치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내달 13일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대회

‘군산시장배 새만금 전국 바다 낚시대회(선상낚시)’가 10월13일 신시도와 야미도 등 고군산일대에서 펼쳐진다.

대회는 당일 오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1시까지 치러진다.

각 어선에 승선한 참가자들은

짜릿한 손맛과 함께 새만금방조제,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로 이어지는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1등에는 500만원과 상품이 수여된다. 대회 참가비는 1인 10만원이고 10월5일까지 접수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수기자 nogusu@

‘고창 스타일’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

고창군은 10월 16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고창 스타일’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제안 주제는 행정서비스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농촌 소득향상, 각종 군민 편의와 복지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고창군 제

안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상금 30만원)·우수 2명(상금 20만원)·장려 3명을 선정해 각각 군수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군정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순창군수품질 인증제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순창 전통고추장의 마케팅 일환으로 추진중인 순창군수품질 인증제가 ‘2012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

순창군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2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서 순창군수 품질인증제가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부문의 대상 수상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 2010년부터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고추장과 원장에 한해 순창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